朝鮮日報

夕刊朝刊合六面

新聞代價 壹枚 四錢 壹個月 八拾錢 郵稅並 九十五錢 參個月 貳圓 五十五錢 六個月 五圓 四十五錢 壹個年 拾圓 八十錢 地方必先金
廣告料 五號活字 四字 壹行 壹圓 廿錢 同欄內 貳號 四字 壹行 九十錢 參號 七字 壹行 貳圓 五十錢 特定料 五號 每壹行 參拾錢
編輯兼發行人 金東成
印刷人 金炯元
發行所 京城水標町四三 朝鮮日報社 (振替京城四〇九九) 電話(光化門) 一六一五 一四七三 一六七二 二八一七

社說
匡救의 誠忠에 一貫하라
—罹災同胞에게 對하든 態度로 平時 一般民衆에게—

一

利己이냐 愛他이냐? 人性의 自然한 傾向은 급작이 判定할 수 업다 그는 또 매우 煩瑣한 問題로서 이에 詳論할 겨를이 업다 利己와 愛他가 同一한 利己的 本能에서 派生한 一元的의 것인지 또는 全然히 다른 人性의 兩面을 代表하는 二元的의 것인지도 지금 잠간 長提함을 避하다 그러나 人類의 本性이 이 利己와 愛他 各個競爭과 相互扶助의 兩種의 衝動으로써 그 生活의 一切 歷史進行의 主要動力을 짓는 것은 否認할 수 업는 事實이다 저 더래도 今日外지의 人類生活의 實際에 도리 보아 그러하다

二

가장 自然的이오 또 相對的 强烈한 氣勢를 가진 것은 끗 愛他에나 온 그것이 아니라 도리혀 利己的 本能에서 出發한 意志的 傾向이다 『아담·스미쓰』의 辯證을 例擧할 것도 업시 만흔 發明 創作 및 種種의 緊要 或은 偉大한 歷史的 事業이 驅猛한 利己的 衝動에 因하야 나옴느것은 一般의 首肯하는 바이다 그러나 非常한 歷史的 危機 또는 突然한 災變中에 잇서서 毅然히 一身의 運命을 度外에 두고 人類同胞이나 天下蒼生을 爲하야 至誠獻身의 匡救的 努力을 持續하는 것은 또한 반듯이 人類生活의 改新과 歷史進行의 一新機軸을 짓는 것이다 더구나 振振한 同胞가 目前에 死滅하려는 非常한 天災時變에 臨한 때에 蔚然히 勃興하는 相互扶助의 純眞한 愛情의 發露를 보는 것은 이 暗黑한 塵世에 잇서서 자못 一抹의 光明을 보는 듯이 無限 欣快의 情을 늣기는 바이다

三

그러나 吾人은 人性自體의 非常한 缺陷을 自認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病을 吊하되 그 健康을 力圖하여 주지 안코 死를 哭하되 그 生의 安泰를 務圖치 아니하며 饑饉에 넘어지는 同胞를 보고 嗚咽하게 悲哀의 눈물을 돌리되 全生을 들어 社會改造의 大事業에 바치는 者는 또 한만치 못한 바이니 天災時變에 當面하야 遽然히 匡救의 義勇心을 發揮하다가 그의 平穩無事함에 미치어서는 곳 冷然히 健忘됨은 안이나라 온갓 合法的 또는 不德的 措處로써 同胞의 利權을 侵奪하고 社會에 害毒을 끼치는 者 比比하것다 그러한 바잇스니 이는 비록 常人의 常情으로 齊怪할을 맛치안는 바이나 그 矛盾과 撞着이 자못 우스울 뿐 아니라 배로는 그 憎惡할 虛僞가 도리혀 正義感에 거실리는 바잇는 것이다

四

近年의 朝鮮은 자못 災變이 荐至하는 觀이 잇다 昨一年 동안 水旱災와 蟲災 等으로 因한 饑饉의 慘狀이 아즉도 終了되지 못한 오늘날에 잇서서 다시 今次의 大洪水로 因하야 吾人 目擊하는 漢江沿岸 七千餘戶 數萬人의 罹災民을 비롯하야 中南部朝鮮 各地의 水害가 매우 互大한 바엿스며 今日에 또 嶺南의 來報가 잇서서 洛東江의 下流 東萊 金海 兩郡 所屬의 島嶼의 防波堤의 破潰로 因하야 全地域이 全滅狀態에 싸짐을 傳하니 그 犧牲의 如何 多數에 達하다는 死亡者의 數를 아즉 全然 脫測할 수 업는 바이나 또한 그 犧牲 및 損害의 程度가 매우 莫大한 것이 아님을 것이라 窮困의 罹災民 中에 沈淪한 朝鮮同胞에게 잇서서 매우 悲慘한 것이 되지 못할 거듭하는 關厄이라 할 것이다

五

今番의 大洪水에 臨하야 京城을 中心으로 各種 社會團體에서 자못 臨機의 策應을 適當히 하야 罹災同胞로 하야금 多少의 稗益과 便宜를 엇게 된 것은 자못 慶賀할 일이오 더욱히 男女 各種團體가 一時에 協力하야 이 非常한 天災 中에 善處할 方策을 講究 또 實行한 것은 吾人 社會生活의 訓練 및 進步의 點으로 보아 매우 欣喜의 情을 禁치 못하는 바이다 그러나 만일 그것이 一時의 偶然한 衝動이나 或은 다만 模擬的 行爲에서 나옴이 아니오 全然 純眞한 同胞愛와 및 白熱한 匡救의 誠忠에서 나옴이라 할진대 그는 다만 이러한 天災 中에 잇서서만이 안이라 그 一貫하는 匡救의 誠忠는 반듯히 敬虔한 殉道的 熱情과 가티 總社會 全時期에 通하야 항상 民衆의 속에서 躍動되어야 할 것이다

六

硝煙彈雨를 무릅쓰고 流血의 實戰에 奔闘를 突進하며 重疊한 勇壯하든 戰士는 돌이켜 그의 平和的 事業 및 社會的 活動에도 또한 非常 旺盛한 意氣와 質力을 보이는 것이다 吾人은 群衆을 압헤 둔 街頭에서나 議壇에서나 試驗室과 工場과 農事場과 및 編輯室과 執務室에서는 항상 이 敬虔한 匡救의 一念을 이즘이 업시 非常한 慘死 中에 가장 緊張되엿든 純眞한 犧牲的 決心을 가지고 一貫直進함을 切願하는 바이다

戰鬪畢竟開始乎
香港政廳은 彈藥食糧運送

(香港十四日發) 香港政廳은 十四日 廣東에 多量의 彈藥食糧을 送하엿는데 政廳은 廣東側과 衝突을 避치 못할 줄로 생각하는 듯하더라

關稅會議急遽開催

(東京電) 關稅會議는 急遽히 中國에서 召集될 貌樣이 濃厚하더라

北京에서 列國會議
幣原外相 倫敦說을 否認

(東京電) 列國의 上海事件에 對한 會議는 倫敦에서 此를 開始하라고 中國側에서는 要求하엿스나 幣原外相은 十四日 閣議에서 右會議는 倫敦에서 開催치 안코 北京에서 開催하기로 된 旨를 述하고 各國도 中國 工部局에 對하야 其旨의 通牒을 發하엿슴으로 日本도 芳澤公使에게 訓電을 發送할 旨를 報告하엿더라

不贊成한 米大統領

(나우엔 十四日發無電) 米國大統領 『쿨릿지』氏는 中國問題에 關한 列强會議를 開催치 안키로 決定하는 데 列强間에 協調政策을 繼續함에 同意한 『아젠』首相 『쓰마츠』將軍은 語하되 安全保障協約 問題는 純然한 歐洲問題인 故로 英國 海外領地에는 何等 關係가 無한 貴치 안흔 條約에 依하야 世界의 發展이 行同時代는 旣히 過渡하엿다 그리고 余는 이제 諸國이 濠洲나 南阿와 如한 新進國과 握手하기 爲하야는 我等은 더욱 自由로 되지 안흐면 안된다고 信한다 하엿더라

露商務官問題
莫斯科에서 折衷

(東京電) 露國政府로부터 過般 『카라한』及 『코프』大使를 通하야 日本政府에 對하야 極東貿易委員會長 『얀손』氏를 主任으로 한 六十五名의 商務官을 日本 各地에 駐在케 하고자 하는 旨의 提議에 對하야 日本外務省은 愼重 講究中이나 結局 問題의 解決은 莫斯科로 移하야 田中大使와 露國政府間에 試할 터인데 日本의 駐在를 容認할 數는 十三名 程度이라더라

國王暗殺企劃한
西班牙共産主義者

(나우엔 十四日無電) 西班牙 『마드릿』市에서 國王 『알폰소』陛下 暗殺을 圖한 二名의 共産主義者가 逮捕되엿더라

四法案
來議會提出決定

(東京電) 十四日의 閣議에서 前議會 以來 懸案이던 左의 四法案을 行政調査會에 附議하야 來五十一議會에 提出하기로 決定하엿더라
一、勞働組合法
一、勞働爭議調停法
一、治安警察法中改正의 件
一、工場法施行令中改正의 件

稅制整理案과
政友會의 態度

(東京電) 政府의 稅制整理案은 其成案을 得하야 最近 閣議에 附議하게 되엿스나 政友會가 主張하는 地租及營業稅의 移讓問題에 對하야는 政府는 이에 言明함과 如히 消極政策을 實行하는 關係上 兩稅의 移讓은 行치 안키로 決한 貌樣이나 此가 閣議에 附議되는 境遇에 政友會 出身閣僚가 果然 此를 承認할는지 否가 各方面의 注意를 쯔는데 一方 政友會에서는 依然히 兩稅移讓의 方針을 變치 안코 旣定方針에 依하야 調査를 進하야 旣히 成案을 得하라 하는 際인 故로 政府案에 贊同할는지 政友會 出身閣僚의 態度는 刮目할 만하다 又 田中總裁의 意嚮도 身閣僚도 또 黨內 有力者의 重臂도 現在로는 政府案에 贊同한 後 年限을 附하야 施行하기로 하고 明年度는 此를 中止하기로 一致할과 如하나 果然 此가 事實이라 하면 黨內에 相當한 紛擾를 起할런지인데 總裁及黨出身閣僚가 如何히 此를 處理하며 又 政府案에 如何한 態度를 取할가 하는 것은 頗히 興味잇는 問題이더라

稅整案에 關한
黨出身閣僚凝議

(東京電) 加藤首相은 稅制整理의 具體案에 關하야 去八日로부터 前後 四回에 亘하야 濱口藏相과 審議한 結果 十三日 若槻內相 幣原外相에게 提示하고 更히 安達遞相에게도 提示하야 憲政會側의 態度를 決定할 必要가 잇는 故로 十四日 閣議 散會後 別室로 加藤首相은 安達 若槻 兩大臣을 殘留케 한 後 十三日 午後 濱相과 審議한 結果 並 地租의 免從點 其他에 關하야 午後 一時半까지 協議하엿더라

小川岡崎兩相
政友幹部會見

(東京電) 政友會 出身閣僚인 小川 岡崎 兩相은 十四日 閣議 散會後 當山의 田中總裁邸에 參集하야 政府關係 其他에 就하야 重要한 會議를 數時間에 亘하야 한 바 稅制整理案은 頗히 重大視되여 閣議上程은 八月初이 되리라더라

危險思想
防止對策決定

(東京電) 十四日 閣議에서는 危險思想의 取締對策에 就하야 協議하고 若槻 小川 兩相으로부터 意見의 開陳이 有한 同時에 學生의 危險思想取締에 關하야서도 岡田文相으로부터 意見을 述하야 結局 右對策의 大體를 決定한 貌樣이더라

協調의 暗礁는
地租、公債等其他

(東京電) 憲政 兩派의 協調가 何時까지 持續할는지는 政界에 매우 興味잇는 問題인바 豫算閣議가 將次 兩派 協調의 實證을 示할는지 그 興否의 分水嶺으로 觀察하는 中이다 特히 地租問題 公債政策、減債基金 廢止問題의 解決 如何가 兩派에 橫在한 暗礁로 注目되는 中이다 勿論 政友會의 積極政策은 政府가 容認할 수 업는 바로서 地租問題는 廢稅할과 如한 結果가 有하야 公債政策에 關하야는 濱口藏相은 依然히 非募債主義를 主張하고 加藤首相도 又 此를 支持하는 中이오 減債基金의 廢止는 對外關係上 政府로서는 贊成키 難한 바이며 殘餘金을 全部 國債償還財源에 充當함은 大藏省의 財政融通上의 關係를 取去하게 될 것이 大藏省은 贊意를 表치 안흘 것이다 近頃 政友會는 如何한 政策으로써 地方自治의 擬興과 財政恐慌의 挽回策을 講究하게 될는지 크게 注目할 만한 바이더라

噫라 彰東校의 運命!
寄附不許는 果何故
存? 亡? 注目되는 今後

黃海道 白川에 잇는 私立 彰東學校는 大韓 光武 七年 우리 半島에 新文化의 물결이 바야흐로 처들어올 때에 當地 有志가 設立한 東明學校의 後身으로 爾來 우리 社會에 만흔 人材를 養成하야 貢獻이 不少함은 勿論이오 자못 感謝의 讚을 不禁하는 바이다 이 學校가 처음 世上에 나올 때에는 當時 自由의 긔빨 아래에 피가 끌는 青年들의 熱誠의 結晶으로 約 四十石 秋收하는 基本財産 外지 엇을 것이 안이라 조금이나 어려움이 업시 希望의 압길만 바라고 나가든 것이 世運의 阻呪로 그만 經營이 困難하게 되여 隆熙 三年 八月에 當地에 잇는 監理敎會에서 經營하는 彰義學校와 合倂하야 前記와 가튼 彰東學校라는 新名稱下에 宣敎會로부터 每朔 四十圓式의 補助를 바드면서 今日外지 該敎會에서 經營하여 오든 바 昨秋부터 宣敎會에서는 經費緊縮이라는 名目下에 四十圓式의 補助金조차 끈케 되자 學校는 또 存亡의 窮境에 싸지게 되엿스나 다만 有志 諸氏의 熱誠으로 閉門치는 아니하고 前途의 光明을 바라고 잇든 中이더니 噫噫! 今春 不意의 火災로 因하야 校舍조차 灰燼되엿는 禮拜堂과 함긔 燒失된 後에 이를 痛歎하는 有志들이 學校後援會를 組織한지 오래 되고 今日에 멀가운 消息은 엇고 禮拜堂만은 信徒들의 寄附金과 宣敎會의 援助金으로 新築하나 이 學校에 對하야는 아모 成算도 업다고 한다 그러나 한가실 마리가 들려 날은 百餘名의 어린이들의 압길을 爲하야 잇는 熱誠을 다하는 金成勳 劉在愛 李珍求 三氏는 從來와 가티 구석구석 어린이를 收容하야 教授하는 同時에 當局에 寄付許可願도 提出하엿는데 여러 가지 口實로 許可치 아니함은 그 意味가 那잇는가를 一般은 疑訝한다더라(白川)

洪原救濟會
第二回分配

咸鏡南道 洪原饑饉救濟會에서 第一回 分配를 하엿다 함은 旣報한 바어니

木浦에
洋服職工組合
發起總會開催

木浦에 잇는 洋服職工 韓慶俊 韓鍾八氏 外 六人의 發起로 木浦洋服職工組合을 組織하고자 지난 十四日 下午 八時半 當地 大正町 韓慶俊氏 方에서 發起總會를 開하고 朴勝億氏의 司會下에 創立總會에 對한 準備를 討議한 結果 同創立總會日時는 七月 十五日 場所는 當地 竹洞 等起草委員은 朴勝億、任榮吉 兩君으로 選定하고 同十一時에 閉會하얏더라(木浦)

晝間斷水로
困難한 海州
當局의 對策如何
住民의 不平沸騰

海州水道는 近日 夜間에 斷水를 하야 一般의 不便이 莫甚하든 바 去九日부터는 다시 午前 十時부터 午後 三時까지 晝間 斷水를 하야 數千戶의 給水가 困難하며 多大한 不平이 逐日 沸騰하여 가는 中인데 이제 그 水道局으로부터 仔細한 理由를 들으면 『元來부터 海州水道는 簡易水道이기 때문에 容量이 一千五百石에 不過함인데 더구나 近者에 이르러서는 給水戶數가 二百이나 더 늘어서 以前에는 一千六百戶에 不過하든 것이 至今의 總戶數는 一千八百十四戶나 되야 以前 배水量이 一千六百石 밧게 되지 안흔 것이 近者에 戶數가 그와 가티 늘고 또는 夏季가 되여 漸次 炎熱할사록 給水量이 늘어 가서 지나간 어느 날에는 一千九百餘石 外지 使用水된 일이 잇서서 到底히 이러한 多量의 물은 現在의 設備로는 不可能한 일임으로 給水戶數가 限하거나 그러치 안으면 完全한 設備가 잇지 안으면 안될 것인데 給水戶數는 하루 이틀이 지나도 增加되야 가니 그러면 그로 因하야 當局에서도 이에 對하야 相當히 考慮中인데 아즉 竣方針도 업는 모양이오 完全한 設備를 한다 하더라도 그러케 短時日 동안에 이 困難을 免하기는 어려울 듯하다더라(海州)

朝變夕改의
道當局
巨濟舊場住民非難

巨濟島 二運面 舊場里에 共同井戶를 設置하고 補助金 外 것으로 二運面長과 크게 말성이 되는 同時에 同里 住民들은 매우 怨聲이 만타 하는데 이제 그 詳細를 들은즉 內容을 들으면 舊場區長은 面長의 命令에 依하야 井戶를 作成한 것이 未來를 料하고 面長은 그 井戶를 昨年度 面豫算에 編成하야 旣히 道當局의 認可를 바닷스나 道의 調査에 依하야 道當局에 提出하는 同時에 舊場區長에게 井戶를 設置하라 하얏는데 이제 와서 道當局에서는 豫算이 업다는 理由로 井戶가 이미 竣工된 今日에 認可를 取消한다는 것이 問題인데 一般은 道當局의 朝變夕改的 行動을 非難한다더라(巨濟)

宜川에
夏期習字會
講師는 姜氏

宜川儒林會 主催로 今月 末부터 當地 鄕校 二層樓上에서 夏期를 利用하여 習字會를 開催하리라는바 敎授는 朝鮮的으로 有名한 名筆 姜史 姜應欽氏를 請聘하야 約 一個月間을 하리라는데 一般은 이 조흔 期會를 놋치지 말고 만히 入會함이 조켓다더라(宜川)

某報支局長暴行으로
青年奮起
各團體와 聯絡하야 際討하기로 決議해

成鏡線 新興驛前에 잇는 高原青年會에서는 去十二日에 重大事項을 討議하기 爲하야 任員會를 召集하야 副會長 李景植氏 司會下에 緊張裡에서 決議하엿다는데 決議事項은 如左하다더라
一、本會長 金泰卿氏가 某報 高原支局長 金某와 體育會員이 合力하야 威脅 毆打로 無數侮辱한 事件에 對하야는 高原 各團體와 聯絡하야 際討文을 世上에 發布할 것과 際討會를 開催하기로 할일
一、高原體育部와 某報 高原支局員과는 一切 絶交할일
一、今般 突發事件에 對하야 委員 宋在濬 朴仁洙 鄭仁寬 三氏를 選定하야 一般社會의 各團體에 聯絡 交涉하야 實行할일
一、本會에서 定例로 討論會를 開催하되 每月 一日、十五日로 定할일(高原)

城北俱樂部活動
義捐募集에 紛忙

市外 高陽郡 崇仁面 城北里에 잇는 城北俱樂部에서는 里內 常備消防器具及 喪擧를 購入하기 爲하야 義捐金募集에 活動한 結果 自六月二十五日 至七月八日까지 里內 居住 有志로부터 義捐한 金額과 氏名은 如左하다더라
金永根 十圓 安德鎬 五圓 尹昊榮 金昌玉 各三圓 徐相俊 閔亨鎬 金一相 鄭明洙 各二圓 成周復 一圓五十錢 金鳳八 安德鉉 李鍾慶 朴剛萬 李允一 李俊煥 李昌培 崔仲淳 車鼎植 李興洙 鄭孫根 金東俊 各一圓 金昌五 尹珍求 黃鍾林 金南山 安德一 金思永 金壽成 文洙仁 田宗煥 申錫永 田仁植 王熙舜 鄭鍾允 金龍成 金顯基 宋在 金學熙 鄭致俊 吳興烈 金泰煥 盧熙俊 申泰元 金仁鎬 金能明 金能在 金明久 宋周國 金德元 吳聖元 金平爾 孟浩善 金壽文 李長洙 車熙明 金致範 洪昌俊 李鍾洙 金成玉 洪憙潤 金炳俊 洪榮燮 宋完根 各五十錢 城北俱樂部員 一同 五十四圓(崇仁)

金堤『라디오』
大盛況으로試驗

全北日報社 主催의 『라디오』 主要地巡回試驗을 去十日 金堤에서 行한다 함은 旣報한 바어니와 豫定과 如히 左記 場所에서 同日 午前 十時에는 邑內 學生、同 九時에는 一般社會人士에게 總覽케 하엿다는데 이 試驗은 이 當地에 잇서 初有하얏슴으로 內外는 人山人海를 이루고 더욱이 못익이 어린 聽衆의 부재질도 一大壯觀이엿는 바 數十種의 興味津津한 푸로그람에 依하야 演說 音樂等의 試驗이 잇서 空前의 大盛況을 呈하엿다더라(金堤)
發送所 驛前 石川農場
受信所 邑內 尋常小學校

革新後
同情多大
高原青年會와 有志人士熱誠

高原青年會는 創立한지 四五個星霜에 實로 有耶無耶 中에 잇서서 一般은 遺憾으로 思하든 바 最近 會員들의 奮起하야 革新한 以來 新進事業을 着着 進行하는 中인데 該會에 義捐한 諸氏의 氏名과 金額은 如左하다더라(高原)
金斗秀 百圓 金容秀 三十圓 韓用煥 李濟九 韓炳洙 各二十圓 徐錫九 金說秀 金仁淑 各十圓 姜昌龍 八圓 孟泰裕 趙弼衡 金有信 金應鎬 姜興洛 金思原 韓性均 金正河 趙衡喆 李馥基 韓光洙 徐宗河 李容善 朴文極 申泰今 崔尙穀 小野川 徐炳河 金容九 各三圓 朴熙恒 趙熙章 嚴致仁 孟泰玩 金應鑄 金熙禹 梁致灐 各二圓 白光旿 金壹 金鳳鶴 朴允根 金洛龍 金元浩 劉在舜 各一圓(高原)

聽衆不過四十
高興郡講演會

全南 高興郡에서는 去四日 午後 四時에 當地 青年會館 樓上에서 講演會를 開催하고 本郡守 王宗性氏의 地方改良에 對한 講演이 잇섯는데 聽衆이 四十名이엿다더라(高興)

財界不況으로
家屋建築減少
今年에는 多少增加

財界不況의 影響으로 平壤市中의 家屋建築의 數는 年年히 減少되야 大正十年에는 三百十五戶 十一年은 二百三十五戶의 增築이 잇섯는데 十二年度에는 減少되야 四百六十二戶가 되엿고 十三年度에는 二百六十三戶가 되얏는데 今年은 六月 末日外지 新築 二百十一戶 改築 三十八戶 增築 六十四戶 合計 三百十一戶로서 昨年보다 漸多한 모양인데 그 中 八割 以上이 朝鮮人의 建築이라 하며 그 原因은 今年은 金融이 多少 閑散하게 된 까닭인 듯하다더라(平壤)

醴泉青年會外學院建築問題

投稿歡迎 十四字 五十行 以內 要 住所 氏名 明記

◇畸形的으로 誕生한 醴泉青年會는 旣히 五個星霜에 其間 總會마다 會長이 改任될 뿐만 大會壯 時를 밧게 되지 못한다 하면서 無運 成就한다 하던 會館의 建築은 秸捃히고 果年風霜에 朝損된 材木外지 某日人에게 賣却하고 말엇다 한다 ◇이에 題目을 꼿처서 大昌學院 建築이라 하면 去年 十月에 期成會를 組織하엿는대 此 組成員 亦是 青年會 幹部와 郡內 資產者 所謂 有力者의 組合體로서 背後에서 擁護하고 잇다 此亦 期成會 組織 當時에는 今春 以內로 必히 完成한다는 論이 잇섯다 그러나 如何한 事由인지 그 떠드든 氣焰도 漸次 冷散하여 지고 말엇다 ◇그러자 今年 二月에 新興青年會가 創立되여 新進 血氣를 醱潮함애 醴泉青年會는 多數의 『얄망이』를 닐흔 空殼가티 外觀을 呈케 되엿다 ◇그러면 有產者로 組織된 學院 建築期成會는 엇지 되엿나? 關係者의 말을 드르면 醴泉市街整理에 件하야 新設되는 道路(學院通路)가 完成되여야 建築한다는 辯解이다 그러나 市街整理에 對한 道路新設問題는 前郡守 金秉泰 時代 旣히 日鮮人 重見 相違로 一昨年 市民大會外지 開하야 相互 緩和하게 된 일이 잇섯다 ◇그리하야 其後 道路豫定地에 加藤某가 번번히 게도 瓦家를 新建하엿고 其近方 朝鮮人家屋은 작구 毁撤하라 한다 即 當局에서 如何히 嚴格한 態度로 諸般의 道路新設에 急急 着手한다 할지라도 赤貧한 朝鮮人으로서의 人家屋을 一朝에 見失케 될 때에는 반드시 쏨님이 잇슬 것이오 屬身處는 必然일 것이다 ◇그러서 醴泉의 空氣가 一變 諸氏와 醴泉青年會 幹部 諸氏는 果然 如何라 하나뇨(醴泉)

內容革新
長城甲子青年會
年齡制限은 四十

長城甲子青年會에서는 去十二日에 第二回 定期總會를 同會館 內에서 開催하고 林大奎氏 司會下에 同氏의 開會辭로 會員을 點名하니 出席員이 四十人에 達하엿스며 議長의 自辭으로 奇老春氏가 書記로 被選되야 順序대로 經過報告及 決算報告가 有한 後 會則 改正에 對하야 會員制로 變更하는 同時에 憲章의 案의 精神에 相違되지 안는 範圍內에서 文句만을 委員會에 一任하야 改正케 하고 任員選擧方法에 對하야 銓衡委員 二人을 口頭呼薦하야 銓衡委員으로 하여금 左와 如히 執行委員 六人 檢查委員 四人을 選定한 後 決議事項에 入하야 年令制限의 件은 滿場 意見이 不一致하야 約 一時間 甲論乙駁으로 場內의 空氣가 緊張함으로 議長이 五分間 休憩를 宣言하고 다시 前問題에 入하야 事情에 不得已 四十歲까지 正會員으로 四十歲 以上부터 特別會員으로 可決되엿스며 正敎部는 直接 本部를 訪問하야 調査하는 一邊으로 各面에 散在한 흠치敎徒의 行動을 調査하여 가지고 此의 對策은 執行委員의 決議에 依하야 實行키로 하고 會費는 月捐金 十錢式 入會金 一圓式 徵收하기로 하엿스며 會員의 義務인 未納金은 新任委員에게 一任하야 徵收하자는 決議를 마치고 其他 必要事項을 決議한 後 同 八時頃에 閉會하엿다더라
執行委員 金允會、奇老春、朴鎬俊、崔海鳳、李敎昌、金寅洙 檢查委員 金宇澤、林大奎、林鏞洙、柳寅私(長城)

高興庭球大會
優勝은 體育軍

全南 高興郡에서는 어린이 修養團의 主催로 東亞日報 分局及 本社 支局 後援下에 去五日 午前 九時半부터 高興公普 運動場에서 庭球大會를 開催하얏는데 高興公普 南面公普 體育協會 部團 어린이 修養團 等 各軍이 集合하야 競技를 開始하자 應援軍의 樂隊 소리와 應援歌聲은 一層 緊張케 하얏는데 數百 觀衆의 興味를 주엇스며 바람이 날리는 優勝旗는 選手의 活氣를 一層 緊張케 하엿는데 果然 優勝旗는 體育協會軍에게로 歸하얏다더라

信川에
穀商協會創立

黃海道 信川에는 元來 穀物特產地로 輕鐵이 開通됨에 따라 一般 穀物業이 殷盛하나 아직外지 同業者間에 結束이 업슴을 遺憾으로 思하든 바 去六日에 穀商協會 發起總會를 開催하엿다 함은 旣報하엿거니와 同十日에 創立總會를 開하고 規則 通過와 會長 洪泰勳氏 司會로 臨時 諸般事項 決議가 잇슨 後 任員을 아래와 가티 選定하엿다더라
會長 洪泰勳 副會長 郭永奎 理事 李甲柱 評議員 金世煥 申致淳 吳仁燮 金泰國 阿部 書記 全泰仁(信川)

全楊州少年少女雄辯
準備에 紛忙

旣報 = 大雨로 因하야 無期延期하얏던 全楊州少年少女雄辯大會는 來十八日에 開催하고자 方今 諸般 準備에 紛忙 中이라더라(楊州)

海州印工親睦會
發會式又延期
來十九日로

海州印刷職工親睦會가 組織되야 지난 十二日에 그 發會式을 擧行한다 함은 이미 報道한 바이어니와 當日은 天氣의 不順으로 因하야 不得已 오는 十九日 밤으로 延期하얏다는 바 場所는 如前히 天道敎堂이라더라(海州)

龍湖島築港
工事着手
竣工되면 有望할 漁場

黃海道 甕津郡 東南面 龍湖島는 道內 漁港으로 有名하나 渡船場이 極히 不便한 外닭에 築港問題는 年來 懸案 中이던 바 過般 道評議員會 時에 築港工事費를 道地方費 中에서 三千圓의 補助와 該島民의 負擔金 一千五百圓 等(其中 五百圓은 失敗으로) 總計 四千五百圓의 豫算으로 設計가 完成되야 今月 初旬부터 工事에 着手하엿다는 바 이 完成되면 西海의 唯一한 漁場이 되리라더라(海州)

金堤讀書俱樂部
臨時總會開催
諸般事項決議

全北 金堤讀書俱樂部에서는 지난 十二日 午後 三時부터 同部館에서 第一回 臨時總會를 開催하고 李奉吉氏 司會下에 點名과 經過報告가 잇슨 後 左記 事項을 決議하고 同 四時 十分에 閉會하엿다더라
一、細則 第四條 部員의 部費 二十錢은 五十錢으로 改正할 것
一、部勢를 擴張하기 爲하야 部員을 募集하되 每 部員이 一人式을 來七月末外지 募集할 것
一、部費는 來二十日外지 加入金은 來十五日外지 必히 納付할 것
一、圖書는 開闢、朝鮮文壇、黎明、改造、我等、맑스主義 等을 購讀할 것
一、新聞은 東亞、朝鮮、大阪朝日 三報를 購讀할 것
一、學術講座는 來二十、二十一、二十二、三日間을 開催하되 諸般 設備及 準備는 總務課에 一任할 것(金堤)

銀波青年會에서
讀書會組織

黃海道 銀波青年會에서는 去數日에 讀書會를 組織하얏는데 一般 新舊思潮에 對한 各種 書籍을 購入하야 新興青年의 智識 普及을 目的한다더라(銀波)

价川에 庭球大會
詳細事項追後發表

來月 九日에 价川學友會 主催와 東亞朝鮮 兩支分局 後援으로 北院公立普通學校 『코-트』에서 庭球大會를 開催할 터인데 詳細事項은 追後 發表한다더라(价川)

南山青年會創立
決議와 任員選定

春川郡 南山面에서는 去三日 下午 八時 同面 芳洞里에서 青年 三十餘名이 모히여 魚宗沔君 司會下에 南山青年會 創立總會를 열고 左記 決議事項과 任員 選定이 잇슨 後 同十時半에 無事 閉會하얏다더라
◇決議事項
一、講習會 設立 期成에 關한 件
一、勞働者夜學 設置에 關한 件
一、農民生活의 經濟的 利益 保護에 關한 件
一、圖書部를 設置하야 青年 敎養에 關한 件
一、農村의 產業 獎勵에 關한 件
一、青總 加盟에 關한 件
◇委員
兪炳旭、魚宗沔、李元鎬、魚宗洌、兪完根、兪昌鍵、兪顯稷、李觀林、魚宗泰(春川)

北星少年總會
委員全部改選

지난 十二日 下午 五時에 海州 北星少年會에서는 南本町 青年會館 內에서 緊急總會를 開하고 左와 如한 事項을 決議하고 任員을 全部 改選하얏다더라
一、會員으로 本會 名譽를 毁損한 者에 關한 件
二、任員 改選의 件
金桂善 金泳根 金鍾元 崔元東 金有泰 李用雨 任肯淳 劉大烈 李鳳奎 金溶燁 林光玉 趙壽海 金昇泰 李南山 李亨根(海州)

革新總會에서
諸般問題討議

◇順天青年會總會 全南 順天青年會에서는 去八日 午後 三時에 本會館 燕子樓上에서 革新總會라는 名目下에 總會를 開하고 臨時議長 朴永鎭氏의 司會로 左記 各 事項을 決議하고 委員 五人을 更選한 後 同 午後 八時頃에 閉會하엿다더라
◇決議事項
一、青年敎養問題 一、生活問題 一、總同盟에 對한 問題 一、反動團體 又는 個人에 對한 問題 一、義捐金 徵收問題 一、會館 建築問題 一、敎育問題(順川)

錦山音樂講習
敎育會主催로

全北 錦山郡內에 在한 錦山敎育會에서는 去十一十二 兩日間에 錦山公立普通學校 講堂에서 會員에 限하야 音樂講習會를 開하엿는대 樂師는 全羅北道 內에서 音樂家로 屈指하는 錦山郡 濟原面 公立普通學校에서 勤務하는 淺野校長의 夫婦이엿다더라(錦山)

關東勸業會社進捗

關東有志 諸氏의 發起인 關東勸業株式會社는 障礙에 障礙가 잇서서 一時 中止 狀態에 잇던 바 發起人 諸氏는 初志를 貫徹키 爲하야 不退不撓의 努力과 辛苦를 한 結果 會社의 基礎가 漸漸 有望해짐으로 第今 第一回 株金 拂込에 着手 中이라는 바 이 會社는 民衆을 本位로 되것임으로 創立되면 우리에게 만흔 도움이 잇스리라 하야 一般은 企待 中이라더라(江陵)

蔡弼近氏講演

去四日 咸北會寧 耶蘇敎基督青年會에서는 現 崇實大學 敎授로 잇는 蔡弼近氏를 請邀하야 講演會를 開催하엿는데 演士 蔡氏는 『歷史、哲學으로 본 吾人의 使命이라』는 問題로 熱辯을 吐하야 一般에게 多大한 感銘을 주엇다더라(會寧)

發生中九割檢擧

平壤警察署의 六月中 犯罪發生及 檢擧件數를 보건대 發生 三百五十九件에 對하야 檢擧件數 三百二十二件으로서 檢擧는 發生에 對하야 九割이 나되는 成績이라는데 犯罪發生과 檢擧件數가 共히 全朝鮮 內에 第一이라 하며 犯人은 物盜가 最多하야 發生數의 三分二가 된다더라(平壤)

開城署犯罪數

開城警察署에서 檢擧한 바 今年度 上半期 犯罪件數는 物盜犯 二百六十七件을 筆頭로 詐欺 三十八件 橫領 二十三件 賭博 五件 紅蔘專賣法 違反 三件 其他를 合하야 總計 四百五十七件이라더라(開城)

南浦第一普校落成

오래 前부터 總經費 三萬二千圓으로 擴張工事 中에 잇든 鎭南浦第一公立普通學校는 六月 末外지에 二百餘坪(八敎室)의 廣大한 校舍가 落成되여 지난 二日부터는 同校 女子部는 前男子部 東便 木造敎室 全部에서 男子部는 西便 敎室及 北便 新築敎室에서 各各 如常히 授業을 繼續하게 되엿다는데 落成式은 新築紀念特別展覽會와 共히 來秋期에 盛大히 擧行할 터이라더라(鎭南浦)

城北俱樂部月例會

去四日 下午 七時부터 市外 城北里 城北俱樂部에서는 月例會를 開催하고 消防具及 喪轝 購入에 對하야 任員 設計書及 義務金 募集 經過報告가 잇섯스며 따라 運動具及 람프레 購置에 對한 討議가 잇슨 後 下午 十時에 無事히 閉會되엿다더라

馬山勸組總會

馬山勸業組合에서는 지난 八日 午後 一時에 魚市場會社 內에서 總會를 열고 第二年度 決算報告 任員選擧 規則改正 等 其他 組合에 附屬된 諸般 事件을 決議하고 同 六時 三十分頃에 閉會하얏다는데 新選 任員 氏名은 如左하다더라
組合長 金漢榮 監事 金器榮 理事 金鍾哲 書記 金暎奎 評議員 金偶滿 金佑權 韓元吉 金炯(馬山)

黃海庭球大會延期

黃州郡 黎野市에 잇는 黎野庭球團 主催로 黎野青年會의 後援으로 지난 十二日에 開催하라든 黃海個人庭球大會는 通月 大雨로 因하야 市中에 漲水가 數尺에 일르러 不得已 오는 十九日 午前 十時로 延期되얏다는 바 各地에서 多數 參加하기를 希望한다더라(海州)

新高山에 白日場

咸鏡南道 安邊郡 新高山에서는 有志 諸氏의 發起로 本月 十八日(陰 五月 二十八日)에 白日場을 開催한다더라(新高山)

運航丸進水式

巨濟 運航株式會社에서는 數個月間으로 諸般 準備에 忙殺하든 바 去 六月 二十五日에 航路 許可를 어더 가지고 去五月에 角山에서 總噸數 二七噸 五八 馬力 三五의 第一運航丸 進水式이 잇슨 後 餘興으로 閑山島 遊覽이 잇섯다더라(巨濟)

价川에 巡廻講演

來二十七日부터 十日間에 价川學友會 主催와 東亞朝鮮 兩支分局 後援으로 郡內 十個所에서 講演을 하게 되는바 그 의 日字와 場所는 아죽 未定이라더라

◇寸鐵◇

【平原】 平原郡 漢川市 漢川金融組合 理事 久田某는 自己의 庭球코트에 自轉車 타고 가는 靑年을 보고 『기사마』라고 하엿다가 無數히 毆打를 當하고 눈물을 흘렷다 그러나 집에 가서는 눈을 흘길 것을 더 이지
【价川】 外東警察官駐在所 新築 落成宴에서는 寄附 諸氏의 列名記를 가지고 入場을 식히는데 四圓 以上 寄附한 李啓鍾은 最後 末席에서 酒一杯를 가지고 二圓式 出捐하엿더마것다 父子間 各히 同等 待遇를 밧지 못한 錢術이 서투른 貌樣
【海州】 妓生 支某는 近日 寄生生活을 버서나서 모두히 베 仲買 生活하야 注射料만 먹고 산다고 方向을 轉換하라면 世上에 길이 그 엇아 닐러인데 出發點이 잘못되얏든 닭이겟지

客月仁郵業績

客月 仁川郵便局 郵便爲替貯金 電信電話 取扱數는 아래와 갓다고
▲郵便物引受個數△通常 書留及 價格表記 七一、九一△集金 一七二、九八三△小包 九七三▲同配達個數△通常 書留及 價格表記 九、四一一△集金 一九四△小包 二、四三三▲爲替貯金受入△爲替 一、七九八、○九一、九九一、五八錢△貯金 二、五二二○二六、七七六、五四○、七錢△振替 八七七、六六二、五四六、七七錢△計 五、一八九○一八一、一三錢▲同上拂出△爲替 一、九九八○九五、一七七、七五錢△貯金 五八六○一七、八八四、○八五△振替 三二○五二、四三、五六五、九六五△計 一六五、九○四▲電信發數△日文 一三、二○七▲報文 四三三△報文 二二四△計 一三、八六四▲同上着數△日文 一七、七四一△歐文 七七四△歐文 一九、一四○△中繼信 三、二二八▲電話度數△市內 三九九、七九九△市外 六、八三八(仁川)

全濟州少年少女雄辯大會
時日 七月 三十日
場所 濟州城內 觀德亭
參加資格 十二歲以上 十八歲以內
申請期日 七月 二十七日外지
申請場所 東亞、朝鮮、兩支局
演題 隨意
主催 東亞日報 濟州支局 朝鮮日報 濟州支局

西海名勝 明沙、長山探勝團員募集
時日 八月 一日로부터 三日間
會費 長淵邑에서 金三圓
申請期限 七月 二十五日外지 本報 長淵支局
集散場所 黃海道 長淵邑
主催 時代、東亞、朝鮮 各支局
後援 長淵 青年會

果然二千二百戶全滅狀態
屍體二百發見
交通杜絶되야詳細한現狀은尚今未詳하나
九死一生의避亂民은龜浦驛에收容하는中

龜浦에서 本社特派員 崔國鉉 特電

귀포(龜浦)와 김해(金海)사이를 흐르는 락동강(洛東江)어구대저도(大渚島)의 인가이천이백호는 십이일 밤부터 물에잠기기 시작하야 아즉까지도 교통이두절되엿슴으로 섬속의 형편을 자세히알수업스나 뎐하는소문에 의하면 섬아래편(남쪽)데방에서 이백의 시톄를발견하엿다하며 대저도는 전멸의상태에잇는모양인데 그중에겨우목숨을구하야 내인피난민은 부산경찰서원과 귀포청년회기타각단톄가 모험서속속귀포뎡거장으로 옴기는중인바 아즉섬을버서나지못하고 나머잇는 사람들은 집웅옥은 버드나무와 기타데방등에올라가서 겨우목숨을 보존하는 형편으로 또한그자세한바는 알수업스되 몃백명의 사망자가잇슬모양인중 귀포뎡거장압일대도역시바다를이루어 류실가옥이 세채나되며 전괘(全潰)가옥이열채첨수가옥이백채에이르럿더라

飢寒에서 떠는二千生命
생쌀을씹어먹는慘境!
삼랑진에모힌피난민=청년회에서구호

◇龜浦驛에서 本社特派員 崔國鉉發電

락동강(洛東江)이 이번비로 넘처서 밀양(密陽)과 귀포(龜浦)사이가 전혀바다를 이루엇슴으로 리재민들은 텰도선로에모혀드러 주텹빠치위에 헐고잇는중인바 밀양하동면(下東面)은 더욱심하야 침수가옥이 오백호이고 류실가옥이 일백팔십호나되며 삼랑진역(三浪津驛)에모혀든피난민이 역시이천명이되여 청년회(靑年會)에서구호에진력하는중이나 어린이들은 생쌀을씹어먹는현업으로 병이생길념려가지잇는데 물은아즉도 이삼일이나 더잇서야 써질모양이더라

軍隊出動을要求
경찰대도어절수가업다

대저도참화의 급보를듯고 십삼일오후열시반 진해요항부(鎭海要港部)에서 구축함(驅逐艦)두척을 급파하야 활동중이나 수세가 맹렬하기때문에 경찰대는엇절줄을모르고 수수방관할뿐이며 군대출동을 요구중이더라

뎡에원조를 금히구하야 그곳에서 촌산(村山)경찰부장과 구산(久山)경무과장과 강본(岡本)부산서장 소서(小西) 부산부에서는 금거회의를 열고 부산관내의어선을 모다 모하서 구호코저렵차에싯고 현장에 운송하얏스나 아즉도(십사일오전열한시)증수중임으로 사톄는고사하고 산사람의 구호조차 극히어려운상태이다

滿目酸鼻의光景
십삼일밤중에돌여쏫수
呼父呼子의哀呼聲

대저도에서 참화를당한 자세한 뎐말을듯건대 십삼일밤에 락동강물이 더욱증수되야 오후구시에는 귀포(龜浦)건너편 대저도의제방이 터지면서 이어서반사간후에 김해수리조합의 데일방축이터저 부근주민약 오천명은 별안간 집채와같이 사나운물결에 떠나려가면서 자식을찾는어버이와 아비를부르는 자식의소리는 거친물결소리와함께 고요히잠들엇든삼경밤네를요란케하야 현장은 극도로비창하야 사람의눈으로는 참아볼수업는 비극을이루엇더라

月光下의千古悲劇
룡궁의자최가이런가

이와가티 떠나려가는 집웅우로겨우몸을 부치가며 『사람살려라』고웨치는처량한소리는 다만흐랫니 달빗아래 들리것만거친물결은 자못파도까지 사나와낫뎌케 구제할길도업시 좌우언덕에서 방관할뿐이어서 비극중에도 가장비극을연출하엿슴으로 일내는 완연히룡궁의악희화(惡戱化)한듯하엿더라

死體는姑捨하고
산사람도
건질수업다
救護極度疲勞

이를구제하고저 귀포소방조(龜

大渚島大慘禍로
市內各團體會議
금일오전열시에조선긔근
구제회에모혀대책을의론

락동강(洛東江)의증수로경부선귀포역 건너편에잇는 김해군대저면의대저도(金海郡大渚面大渚島) 가전멸되여 삼천여명동포의생사를 알지못한다는 놀라운 소식은 본보호외와석간의 보도와갓거니와 이소식을들은 부내각단톄의 유지는그곳 동포들을 구하기위하야 몬이오 그의의각디수해의 리재민에대한 선후책을 강구하고저 금십오일 오전열시에 부내수표뎡(水標町)사십일번디조선긔근구제회(朝鮮饑饉救濟會) 안에모혀서 의론하리라는데 일반유지는 다수히 참가하여주기를 바란다한다

朝鮮饑饉委員長
李鍾麟氏出發
위선재해디로
작야밤에출발

이번김해군대저면(金海郡大渚面) 참해에대하야 조선긔근구제회에서는 사실이너무 놀라운 일이라 미처준비할 여유도업시 위원장리종린(李鍾麟)씨가 십사일밤열시 경부선렬차로 재난디를향하야출발하엿더라

龜浦驛雜遝
조난동포를
구제하고자

경부선도 십삼일부터 개통되엿슴으로 그부근으로부터 혹은일가친척의 생사여부를알고저 혹은 동포의조난을 구제하고저 이래 커래모혀드는 손이한때는 쇄도하야 귀포역부근은 과연개벽이래처음보는 잡답을 이루엇더라(십사일오전보)

盧雲奎氏美擧

연강(沿江)리재동포를위하야 도처의유지로부터 금품미곡등의 의연이 답지함은 신문지상에 계속보도되는바로 이제다시 시외룡강면현석리(龍江面玄石里) 로운규(盧雲奎)씨가 벼미두섬반을내여 현석리 신구수철리(新舊水鐵里)신정리(新井里) 동네동리의 극빈자세사람압헤두되(二升)식 나누어 주엇스며 기외김정택(金丁澤)씨 이원오십전 장영환(張英煥)조윤신(趙允信)량씨각 오원 정진복(鄭晋馥)씨사원 기타십씨가 합계삼십이원이십오전의 현금을내여 극빈자매인압헤이원식나누어주엇다고

慶山流失十七戶
동산강물이넘처오동리는
거의전멸할디경이라고!

홍수로인하야꿈에도생각지안튼 경산군하양면 사긔동(慶山郡河陽面沙器洞)서사동(西沙洞)도리동(島里洞)동서동(東西洞)금락동(琴樂洞)등

다섯동리는거의전멸되엿다는데 원인은구하양읍내(舊河陽邑內)를횡단하야흐르는동산강(銅山江)이 십사일 오전두시경부터 가로터지는 동시에 사나운물결은 전긔 다섯동리를 음습하여서 아이들은 부모를부르고 부모는아이들을 차저도라다니는 참상은 보는사람으로하야금 눈물을셕리게하며 자금은어데잇는지 도모지알수가업는형편이라는데 지금까지 됴사한손해는 다음과갓다

死亡者二三(屍體發見一三) 流失家屋一七▲全潰三七▲半潰一六▲浸水一一〇 (대구지국뎐뎐)

有志의同情 이와가튼의외의참상에대하야 일반의 동정금은다음과갓더라

日本人側 三百五十圓
中國人六戶 六十圓
朝鮮人側 六十五圓
永川靑年會 二十圓

永川靑年活動
위문대를조직

이외에도 영천청년회(永川靑年會)에서이십여인이위문대(慰問隊)를조직하여가지고 현장에향하엿더라

達城郡의九生命
거처가불명하다고

달성군화원면구라동(達城郡花園面九羅洞)에도 홍수가나서참상을 이루엇다는데 그피해는다음과갓더라 ▲夫處不明九人▲流失家屋四▲全潰八▲浸水家屋五

前府尹을파는
京城府의苟且한辯明
리완용후감액으로악영향이
잇스면그때나단연처치

리완용후(李完用侯)의 학교비감액문데로 학교비평의원(學校評議員)을비롯하야 일반이

분긔하야 교섭위원삼인이 데일차로 부당국에교섭하엿다함은 이미보도한바어니와 평의원중에서는 다시교섭위원 박준호(朴準鎬)김창두(金昌斗)량씨를선뎡하야 데이차로 마야부윤(馬野府尹)과 장미내무과장(長尾內務課長)을방문하고담판한바 마야부윤은 묵묵부답이엿고 장미내무과장은 다음가티 답변을하더라 리완용후의 학교비는 오등으로하엿든바 리완용후가 그것을 너무도맹렬히 불복하는고로 다시됴사한결과 십사등에해당함으로 십사등으로 하라하엿스나 너무

급전직하로나리기가어려워서 십등으로하엿습니다 이것은 전부윤곡다희마(谷多喜磨)씨가 자긔가 관계하든그문뎨는 자긔가결뎡하여야 한다고 그가티한것이외다 그리고 그전에도 그와가티 감액하여준곳이 십여명이나 잇섯습니다

다 이번이문데로인하야 여러가지악영향이생긴다는말에대하야는 절대보장하겟슴니다 만일 악영향이잇다하면 그때에는

단연한처치를하겟슴니다 이외다 하여간이문데로말하면 부에서 처리가잘못된것이 사실이외다 하며 변명하기 어려워하는표정이 은연히보히더라

辭職한普專校長
留任懇願
리사회에서
류임하라고

보성전문학교장(普專校長)유성준(兪星濬)씨가 몃가지 요구에 다항은 작일석간에 이미보도한바어니와 그학교 리사(理事)측에서는 즉시그사표를 반환하는동시에 류임하여주기를 간원하엿다는데 장차문뎨가 엇더케해결될는지 매우 주목되는바이라더라

校長任務를
다할수
업스닛가사직
兪星濬氏談

이에대하야 사표를 데출한교장 유성준(兪星濬)씨는 병상에서신음하면서다음과가티말하더라 나는방금 병으로 다소고통을밧는중 임으로 미안하오나 지금에 여러말슴을 하기가어렵습니다 하여간나는 교장의임무를 다하기 어려워서 사표를데출한것 뿐이외다 그동안 소문에가 업섯든것은 아니나 자세한말슴은 병이 나은후에 말슴하야 드리겟습니다

何如間二三日
안으로
귀정되겟지요

동교재단리사(財團理事)중의한사람인 리승우(李升雨)씨는 말하되『일이벌려지지안토록하려한것이 발서소문이낫슴니다 그러나 그러나이것이 다른사회의긔관이면 몰라도 교육긔관(敎育機關)인이상될수잇스면 아모일업시 무사해결되도록하고 십습니다 유청준씨가 교장을 사직한것은 사실이나 그사직원을 돌려보내고 류임하도록 권고중이며 아즉리사회도열지안엇습니다 하여간이삼일안으로 귀뎡이날것이다 그러면아시게되겟지요』[운운]

申錫休氏出獄
가출옥으로

긔미년(己未年)에 평양폭탄사건으로 검거된 신석휴(申錫休)씨는 징역칠년의 선고를밧고 평양감옥에 복역중이든바 형긔가 아즉 일년여를남기고 지난이일에 출옥하야 시내에서 정양하다가 일간에 전남고흥읍내(全南高興邑內)로 도라갓다더라

朝鮮生命保險
外交囑託員
가입금을
횡령하고톄포되엿다

수삼년전에 시내남대문통(南大門通)조선생명보험주식회사 경성지부(朝鮮生命保險株式會社京城支部)로부터 사원모집을위탁하고 그내용을 절대비밀에부치고 엄중히 취조하는중인데 이제그자세한바를 탐문한즉 전긔회사경성지부 외교촉탁원(外交囑託員)으로 금년봄에취직한 리뎡화(李庭華)라하는자가 디방으로도라다니며 회사를 파려가난한 사람의 주머니를기우려 모흔가입금(加入金)이백오십원을횡령 소비한것이 발각되야 검거된것이라더라

全朝鮮非行宣敎師
調查膺懲會實現
선언강령을발표하는동시에
집행위원칠인을선뎡하야

목포뎡명녀학교맹휴사건(木浦貞明女學校盟休事件)에 관련한 비행선교사(非行宣敎師)에대하야 당디 목개단테련합회에서는 미국남장로선교회(米國南長老宣敎會)로통고문을 보내여 그곳으로부터 회답문까지 바닷다함은 이미 보도한바어니와 지난십일일밤여덟시에 목포 청년회관에서 동련합회주최의 비행선교사에 대한 전말보고연설회(非行宣敎師에對한顚末報告演說會)를열엇는데 차남진(車南鎭)씨의사회하에 김상규(金商奎)씨의경과보고가잇슨후 배치문(裵致文) 조극환(曺克煥) 량씨의 소감연설이 잇섯는바 더욱 동사건진행방침을 련의하야 결뎡하기위하야 전조선선교사 비행됴사응징회(全朝鮮宣敎師非行調查膺懲會)를조직하기로되야 석에서 선언강령을 발표하엿는데 동회의집행위원은 아래와갓다더라

車南鎭 金商圭 金鍚煥 裵致文 徐丙演 朴在鳳 曹克煥 (목포)

安東에赤痢猖獗
일반이매우걱정

경북안동군(慶北安東郡)시내에는 지금부터 일개월전에 적리병(赤痢病)이 발생하야 경찰당국으로 부터 다소예방을 하여오던바 날마다 환자는더욱늘어나는 형편이며 또이때문에 경안의원(慶安醫院)에서는 지난사일에 미리하기(夏期)시험도 업시방학 하엿다는데 작고발생되야 일반은매우걱정중이라더라(안동)

出監即時에死亡
釋王寺警官駐在所에서
취됴를밧다가죽게되야
순사가업어내오는길로
一般이死因을疑心한다

지난칠일에 경원선석왕사주재소(京元線釋王寺駐在所)유치장에서 엇던정신병자한명이 죽게된것을 그곳순사들이 그이웃김성찬(金成贊)의방에업어다두엇스나 곳그자리에서 사망하엿는데 이사람은 그전날에시가를다니며 행색이수상함으로 주재소에서 불러다가 됴사한결과 그몸으로부터 돈칠십원이나 잇슴으로 그를 눈뜻하다는바 그사람은 황해도신계군신계면룡수리수구다(黃海道新溪郡新溪面陵水里水口坐)구백륙십삼번디 박룡련(朴龍連)이라고 도장과 명함이 잇섯는데 그죽은원인에대하여서는 일반이 매우의심을품는중이라더라(안변)

春山亭事件은
서장이취됴할터
순사부장의괴상한일로

함남리원서(咸南利原署)에서 그읍내에사는 료리뎜 춘산뎡(春山亭)의 주인김귀하(金龜河)를 인치취됴중이라함은 긔보한바어니와 그뒤에 동아、조선(東亞、朝鮮)량지국의긔자가 직접서장을방문하야 사법계주임 순사부장무본(巡査部長武本)이가 그료리뎜창기금선(今仙)이를취됴중 자긔사택으로 다려다가 장시간후에 보내엿다는등 비상한일에 대하야 질문한바 서장은그에대하야 아래와가티말하더라 『나는 사히차호(遮湖)에출장하엿다가 도라왓슴으로 이사실을처음듯는바이며 또이것이 사실인지 래일부터 춘산뎡사건을 직접으로내가취됴를하여보겟소』(리원)

鎭南浦失職者
一千餘饑饉慘狀
쌀은산가티싸혀잇스되
오직보기만하고굶주려
富豪는冷淡、當局은夢囈

진남포(鎭南浦)시내에잇는 각정미공장(精米工場)이 원료(原料)부족으로 작업을중지하야 거긔에종업하든 남녀정미직공 천여명과 그밧게 정미업에 관련된 로동에종사하든 자유로동자 다수가 일조에 직업을일허버리고 할일업시 길가에허커서 긔운업시 방황하고 잇다함은 본보에 이미보도한바어니와 이래 전긔실직로동자들은 여러가지 방면으로 직업을찾노라고

각각험이 자라는데까지 헤매여보앗스나 아모 살길을찻지못하고 마츰내 수일전부터는 비석리(碑石里)억량리(億兩里) 신마사리(新麻沙里)한두리(漢頭里)룡정리(龍井里)후포리(後浦里)가튼 로동자가만히사는 촌락에는 한편에는 쌀이산가티싸혀잇건마는 로유남녀 일천여명이

긔운업시 쓰러저 이로형언할수업는 비참한 정경을이루엇는데 이에대하야는 아즉당국에서도 상세히 됴사한바가업서 정확한 수자를알수업스나 본사진남포지국에서 데일회로 대개됴사한바에 의하면 각리별긔근빈민의호수는 다음과갓더라

▲碑石里八十戶▲億兩里九十戶▲龍井里七十戶▲後浦里四十戶▲新麻沙里三十戶▲漢頭里二十五戶合計三百三十五戶(每戶平均三人總人員一千餘人)

『運數라莫可奈何』
얼음보다도더찬
某老富豪 談

로동으로 간신히 생명을 부지하고지내든 가련한 로동자중에서 삼백여호 일천여남녀 로유가 개로아츰에 무참한 긔근에싸진데대하야 시내 엇던부호는말하되『하기는 이번일이 남포가개항된지이십여년에 처음보는일이오 그러나 그역조선사람의운수(運數)라 엇절수업는 일이지오 오현미(玄米)한섬에 팔원하든쌔가 다시또 도라와 조선사람의 재주가 한번다시 세력을쥐기전에야 별다른 구제책이잇슬것이잇소?』하고 낫빗도변치안코 얼음보다오히려더한층찬행평한태도로 고뎐(古典)가튼 수작을토하고 잇섯다

『今始初聞이오』
山村內務課長談
그러면됴사해보지오

『아그런 일이잇서요? 정미공장(精米工場)이 전부 휴업(休業)이란말도 처음입니다 마는 실직(失職)자가 그가티 만히생겻단말슴은 전혀 지금처음듯는말슴입니다 괴지난봄에 실직한이들은 그후에 승입(繩叺)제조업에옴기여 대개다안돈이 되지안헛슴니까? 그리고 어제도지나면서보니까 도로개수(道路改修)공사하는데는 몰녀치는 부녀(婦女)가적지안습되다』남의죽엄이 제감긔보다못하다는 드시 참고머가를할만 느린느린하게 거듭하더니 그래도 좀아니되엿든지 『하여간 됴사(調査)하여보아서 덕당이구제하도록하여야 지오?』하고 구차한 정의를표하더라(진남포)

神社落成式에
朝鮮人四名重傷
녀자두명아이두명이중상
입원치료중에생명이위독

사리원(沙里院)이 황해도(黃海道)의중심디라고하야 시민들의 만흔 긔부로 사리원(沙里院)의 유일한 경치(景致)를 가지고자랑하고잇는 경암산(景岩山)서록(西麓)에다가 신사(神社)를 피장하고 지난십이일에 락성식(落成式)을 하는중 만흔사람에게 흥미를주겟다는뜻으로 씨름(角戲)을할때에 자연히뜻잇는 사람이나뜻업는사람이나 만히모히게되엿슴으로 형편상 잘뵈이는편으로가서 몸을의지하게되엿는데 뼈에태자조합(太子組合)에서 지은다락에 만흔사람이올라잇게되엿고 다락아래에는 조선사람만 잇게되엿는중에도 녀자들과 아이들이 만히서잇섯는데 별안간 다락이 문허저서 녀자두명과 아이두명이 중상되엿슴으로 즉시 내재동병원(齋藤病院)에입원치료중이나 부상자의 씨명은아래와갓더라

景岩里金秉諾親安氏(三五)
同 韓從煥妻裵氏(二八)
同 金玉寶二女仙女(一)
北里 金萬會姪二○(九) (사리원)

失妻者의告訴
유인한자가잇는듯

보천을 강원도회양군안풍면 화

(黃海)(黃州)은지난구일에 당디경찰서에 자긔안해를 차저달라고 수색원을 데출하엿다는데 그자세한내용을 드른즉 그안해편수남(片壽男)(一九)이와 약팔년전에결혼하야 작년에아이까지 나코 가난하나마 자미잇게 살림사리를하여오던바 수일전에 그남편이업는 틈을타서 그이웃집강원득(姜元得)(三○)이란 남자와 불의의 관계를맷다가 발각되야 일장풍파가 녀자는그후로도개파하는일이업시도되여 지난팔일밤에 은 아이와십년이나 가티살든남편을버리고 간부강원득과 데로도망하엿슴이라며 금번조선긔근구제회(朝鮮饑饉救濟會)에드러온 구제금은아래와갓더라.

怒濤狂浪中에
漂流兒를救濟
십륙세의학생의
용감스러운활동

지난십일일 오후네시경에 경의선신막(京義線新幕)공립보통학교(公立普通學校)데사학년생박승봉(朴承鳳)(十六)은 장마비로불어난물구경을 나갓다가 마츰압내가에서 물에떠내려가는아이가잇슴을보고 위험함을무릅쓰고 뛰어들어 구제하엿는데 그아이는 신막사는 리뎡숙(李貞淑)의 장남김형재(七)이라 동리사람들은 그의 용감한행동을 칭찬한다더라(신막)

群山共組事件
구명을검사국에

군산정미인삽공동조합원(群山精米人插共同組合員)뎡재근(鄭在根) 장옥순(張玉順) 리복만(李福萬)외 리명옥(李明玉)안병호(安炳鎬)외사인을 구타하야 중상시킨사실로 당디경찰서에검속되야 취조되어오든바 그뒤 전긔뎡재근(鄭在根)외 팔명은 지난구일에 검사국에 넘기엿스며 더욱동조합에서는 전긔구인을 조합에서제명하고 조용관(趙容寬)씨 구라한중에 두사람은 무긔휴업을식히엿다더라(군산)

刑事中心의
사긔사건판결

루루히 보도한바어니와 고등계형사(高等係刑事)로잇던 정영일(鄭永一)을 중심으로 하고 이러난 공갈 독직 공문서위조 행사 사긔(恐喝 瀆職 公文書僞造 行使 詐欺) 범죄에 관한판결은 지난십일에 경성디방법원 좌좌목(佐佐木)재판장으로부터 언도되엿는데 형긔는 다음과갓다

▲鄭永一、金東弼各懲役一年▲高義穆懲役一年 ▲林壽命無罪

兼二浦事件은
紙幣僞造
사건은점점확대될듯

겸이포(兼二浦)에 모 중대사건이 발생하야 평양경찰서와 평양디방법원두곳에서 련합대활동을 개시하엿다함은 긔보한바어니와 지난칠일에 현장에출장하엿든 평양디방법원률산(栗山)검사 평양경찰서 삼영(森永)경부보 이하 수명의형사는 아즉것 평양에도라오지아니하고 그곳에 묵으며 범죄수사에 진력을다하는중이라는바 그사건에대하야는 오날까지 당국자로부터 절대비밀에부처두고 자세한 내용을 보도할수업스나 진실한곳으로부터 탐문한바에의하면 그사건은 대규모(大規模)의 중국지폐위조사건(中國紙幣僞造事件)으로 중국인 모(某)를중심하야 외국(外國)등디로부터 긔계(機械)를 수입하랴다가 그단서(端緒)가 평양경찰서원에게 발각된 모양이라하며 이사건에 관계된 일본인들이 상당히 련락을 취하야가지고 겸이포에 본뎜(本店)을 베푸러노흔 모양이라하며 이가티 여러날을 허비하야 현장수사에 권력을다하는것을 미루어보건대 사건은 매우 중대화되는 모양이라더라(평양)

휘파람

◇訂正。 去十三日本紙夕刊『有志美擧』欄下記事中玄石里金晩宰는李晩宰、韓爽喜는韓爽熙의誤植이기訂正함

▲의주(義州)모보통학교선생님 일본인모는 수신시간에 학생들에게 하야『조선사람은 만나는일본사람에게 나쁜쌀에나는좀파가트닛』하야 학생들과 학부형들이 분개하지안는다한다▲일본인선생들은 사범과에서 그러한과목을 너무어려서 가르첫는지 여럿곳에서 그대위선생이 잇서 말썽이 만흐니 그것이 무슨까닭인가▲그 몰라찰학교에 자식을 보내지아니하면 하네못하게하고 십지도 안라고 가르칠곳이 업는 내신세한탄을하는 곳에 자식을 보낼곳이 업는 것이 응당한일이랄 안다마는▲그래도 돌으면또다시 그어린이들 외가슴이 쓰린것이 제절로생각이나서 억제하기가 좀어렵다회

미인이되는
단장의방법 (三)

1 왼화장의 가지가지

왼화장이라고 하는것은 가장단하게 살적고흔분을 조곰바르는것이니 특별히 녀름에는 마음이상쾌하여지고 싯피는봄에 더욱이 일반으로 환영하는 경향이보임니다、왼은화장은 제살빛을일치안코 점잔은 여염부인들과 숙녀들에게 매우적당하다할수잇슴니다 화장료는 함수잇는대로 간단한것이필요하니 거긔에는 왼화장을하는방법과 화장품도 여러가지종류가잇슴니다、

2 물백분을쓰는법

왼은화장을하는데 데일만히 쓰이는것은 물백분이올시다、물백분은 얼는말하자면『백분을엷게풀은 액체(液體)』라고 할수잇고 그것을다만조곰발느는것으로 곳왼화장이되고 맙니다、그런데 물백분중에도 품질이 조치못한 백분가루가 섞기여된것이잇슴으로 그것은 살결을 거칠게하는 폐해가잇슴니다、레-도물백분은 순무연(純無鉛)한 백분원료와 살빗을 아름다웁게 하는화장수를 화학적으로 배합융화하여 만든 것인고로 보통물백분과는 품질이다름뿐아니라 절대로 무해무독하고 수분(水分)은 화장수의 작용을하야 살결을자연히 미화케하는것이올시다、레-도물백분은 손바닥에 더러두손으로 문질러얼골에 바르는것만으로 몹날만하게 아름다워지는 왼화장이됨니다、그리고 물백분을 쓰기에는 반다시 병마개를 막은채로 병을흔들어쓸것이요 손에 기름이가 잇스면 그것이얼골에 장술이 또어여잇스릿가?

3 가루백분의 얼골화장

왼은화장법이잇슴니다 가루백분을 쓰는화장법이잇슴니다 그방법은 크림레-도를 얼골에 고르게바른후에 레-도를 조금식 솜에한번씩 가루백분을 얼골에 바를것이올시다 만히 뭇치면 곱게 되지안는것이니 조곰식 뭇처서 사르르 바르는것이 주의하야 가루백분은 조흔것입니다、레-도가루백분은 질이곱게되야 한번바르면 곱게피여오르고 미백원료(美白原料)도 전매특허 배합임으로 순무연(純無鉛)백분이여요 녀학생계에 매우적당한 조흔모양입니다、이두가지화장법은 비교적간단하고도 레-도백분의독특한 화장술을 발견할수잇습니다、특별히 레-도가루백분은 땀과지방을 흡수하는 작용을 가지고잇는고로 얼골에지방이잇는사람이나 땀이만히나는 녀름한철에 애용하는분이만습니다、

4 레-도메리의 일분간연습은화장

살결이고하지고 살빛이희여지는 레-도메리는 다만솔직얼골에 한번바르기만하면 곳곱운한 화장이됩니다、일분간에 미인이되는 그런케 희안한화장품이 또어데잇스릿가?

당신의얼골을
더욱더욱아름답게하는
純無鉛專賣特許
레-도가루분 레-트粉白粉 (下)
레-도물분 레-트水白粉 (左)